

환경 메시지로 추억 선사

무주반딧불축제 막 내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 인기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을 주제로 9일 간 펼쳐졌던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에 3일 막을 내렸다. 무주읍 예체문화관 주차장 주무대에서 진행된 이날 폐막식에는 황정수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사)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이성만 제전위원장을 비롯한 내빈과 관광객, 그리고 지역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을 주제로 9일 간 펼쳐졌던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에 3일 막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축제 폐막선언 장면

글로벌 태권도시범 페스티벌 특별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 하이라이프 영상 관람,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이 함께 부르는 '개광발래'가 대미를 장식했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폐막사를 통해 "환경축제로 본분을 다하며 대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군민들이 다함께 노력했던 축제라 더 의미가 있었다"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이은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가 우리 군민들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키우는 동력이 돼서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도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 폐막식은 불가리아의 중곡, 내팔, 이란 등 10개국을 대표하는 태권도 시범단이 무대에 올라 무주가 태권도성지임을 각인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의미를 더했으며, 인기가수 민승엽과 박강성, 우연이, 신유, 오로라, 서연아 씨가 축하 무대에 올라 축제를 전후해 마음을 모아

동참했던 무주군민들을 격려하고, 마지막 날까지 축제를 함께 즐겨준 관광객들에게 신나는 노래를 선사하며 폐막의 아쉬움을 달랬다.

주민 김모(52, 무주읍)씨는 "반딧불 축제가 온 국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데 너무 자랑스럽다"면서 "5년 연속 최우수축제다"며 "올해는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삼바춤을 선보여 더욱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고 전했다.

관광객 이모(48, 대전광역시)씨도 "아이들이랑 해마다 반딧불축제를 찾고 있는데 올해는 축제장도 너무 아가자기하고 환경축제 콘셉트에 맞는 유익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겨서 새

로웠다"며 "신비탐사지 감감한 숲에서 반딧불이 흩날리는 기분도 환상적이었지만 밤하늘 별자리를 보며 마음에 새겼던 반딧불 찾기 프로그램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2013년~2017년 정부지정 최우수축제에 선정된 바 있는 무주반딧불축제는 올해도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삼바춤'을 선보여 더욱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이번 축제에는 도내 14개 시군의 의원과 직원 등 500여 명이 참가해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박명석 의장을 비롯한 진안군의회 의원들은 행사장 입구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참가자들에게 축제 리플릿과 홍삼차, 홍삼차를 나눠줬다. 또한 시군별 행사장 부스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오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마이산 북부 마이몬테마파크에

'진안사랑 주소 갖기 운동' 대대적 전개

진안군은 지난 1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적정인구 확보를 위한 인구유입 시책의 일환으로 '진안사랑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미전입자가 상당수 있다고 판단하고 올 연말까지 지역 거주자 가운데 미전입자를 대상으로 주소지 이전 운동을 집중적으로 펼칠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기업체, 군부대, 학교 등 66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서장을 책임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전입을 추진하는 책임 담당제를 운영하고 각 부서별로 지역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인구 늘리기 시책을 홍보하고 진안 주소 갖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기숙사 근로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로 주소 옮기기를 권장하고 전입신고와 함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업

에 지장이 없도록 전입신고 신청에 편의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방침이다.

또한 군수 명의의 서한문과 함께 전입자와 인구 시책에 협조한 기관·단체·기업체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전입 장려 지원책 등이 상세히 실린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기관·단체 등에 발송하여 범 군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소 이전, 출산장려금 지급과 같은 단기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결혼과 출산장려 시책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방침으로 인구 3만 명 회복을 조기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항로 군수는 "인구를 지키는 건 군수와 공무원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며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야 가능한 일기에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

무주군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1~7.)을 맞아 '내 혈관 내 혈당 내가 지켜 건강하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관내 경로당과 시장, 군청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중합복지관 등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서 진행되며, 지난 1일부터 3일까지는 반딧불축제장에 건강체험 부스를 마련해 주민들과 접촉에서 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측정)과 상담을 진행했다.

또 '자기혈관 숫자알기' 운동 동참을 권장하는 리플릿과 홍보용품을 배포하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수칙을 공유했다.

황영내 방문보건 담당자는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실천할 계기를 만드는 게 이번 캠페인의 목적"이라며 "연령 별로 많이 보이는 장소들을 방문해서 맞춤형 홍보와 상담, 검진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시군의회 한마음대회'서 홍삼축제 홍보

진안군의회 박명석 의장·배성기 의원 의정봉사상 수상

진안군의회는 지난 1일 장수군에서 열린 제15회 전북시군의회 한마음대회에서 2017 진안홍삼축제를 홍보했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14개 시군의 의원과 직원 등 500여 명이 참가해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박명석 의장을 비롯한 진안군의회 의원들은 행사장 입구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참가자들에게 축제 리플릿과 홍삼차, 홍삼차를 나눠줬다.

또한 시군별 행사장 부스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오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마이산 북부 마이몬테마파크에

서 열리는 홍삼축제 일정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특히 홍삼축제를 홍보하며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받은 진안홍삼의 우수성도 소개했다.

이번 대회에서 박명석 의장과 배성기 운영행정위원장은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봉사상'을 받았다.

박명석 의장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 의정봉사상을 받았고, 배성기 운영행정위원장은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의정봉사상을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진안군은 2017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9월 4일부터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군은 총 1,505필지에 대해 지난 6월 30일부터 토지특성 조사를 시작해 지가산정을 마무리하고 9월 1일까지 4명의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완료한 상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표준 결정자료,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므로 매년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기간을 갖고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은 각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이용하여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 한다.

관련 문의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477,2246)으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잊혀진 가야사, 호영남 소통 열쇠로 거듭나'

장수군, 가야사 전시회·세미나 개최... 가야문화권 공동결의문 발표

장수군이 가야사 전시회 및 세미나 '잊혀진 가야사, 호영남 소통의 열쇠로 거듭나다'를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전시회는 국회의원과 함께 3층 제3로비에서, 세미나는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는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호영남에 걸친 가야문화권 지역의 국회의원과 한영희 장수부군수와 시·군 자치단체장이 함께하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위한 포럼'이 주최하고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의장 박용환 고령군수)가 주관하여 국토교통부 및 문화재청 후원으로 준비됐으며, 장수에서는 장수가 아지킴이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제3로비에서 열린 전시회에서는 전라북도 장수군과 남원시가 포함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20개 시·군이 선정한 아름다운 가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물 사진 60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었다.

대회의실에서는 식전행사로 가야금 연주와 뮤지컬 갈라쇼를 선보였다. 또한 가야문화권 포럼 차원에서는 '호영남 통합을 위한 가야문화권 공동결의문'을 발표해 현 정부에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를 추진하고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세미나는 광장군 군산대학교 박물관

장의 전북가야문화유산 현황과 그의 의미, 김세기 대구한의대학교 명예교수의 낙동강 중상류지역 가야문화의 실체와 그 의미, 이동희 인제대학교 인문문화학부 교수의 전남 동부지역의 가야문화, 조영제 경상대학교 사학과 교수의 서부경남 가야고분의 현황과 조사·복원 방향 등의 토론회가 이어져 각 지역의 특색있는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김경옥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가야(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방향 검토, 최종덕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이 가야문화권유적 조사 방향에 관한 정부측 토론회로 나서 상세한 설명을 더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밀원수림 확대 조성 나서

진안군은 경쟁력 있는 산림자원 확대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87ha에 아카시아, 헛개나무, 백합나무 등 약 18만4,600본의 밀원수종 식재를 완료했다.

또한 가을철 조림은 수종별 개화시기에 맞는 다양한 수종의 2만7,600본의 밀원수를 용담면 유취지 등 13ha에 식재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2012년부터 본격적인 밀원수림 조성으로 현재까지 1,190ha의 면적에 백합나무, 헛개나무 등의 밀원수종을 식재했다.

최근에는 밀원수림 조성 5개년 계획

을 수립하여 2021년까지 1,200ha에 밀원수림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밀원수림 조성 5개년 계획 중 군 역점사업인 부귀산 개발과 관련하여 별채한 지역에 밀원수림 단지 조성을 통해 민원해소와 산림소득 증대는 물론 등산객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밀원수 조성 과 체계적 조림 관리로 향후 밀원 확보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기대된다"며 "9월 중 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하여 밀원수 조성에 머리를 맞대 산림자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